

## 새 해 인 사

## 협력과 소통으로 주민 뜻 받들 터



이강영 남구의회 의장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기대와 희망을 담은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황금돼지해인 기해년(己亥年) 새해에는 구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만복이 깃들시길 바라며, 더 큰 꿈 꾸시고, 더 많이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올해는, 그동안 축적된 의정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회 본연의 권한과 책임

을 다함은 물론, 늘 낮은 자세로 주민만 바라보며, 주민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의 행복한 삶을 살피드리는데는 '좋은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때로는 경쟁하겠지만 여·아가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토대 위에 주민의 참된 뜻을 받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성과 책임감은 더욱 더 강화하고, 소통하고 협치하는 의회의 터전과 기틀을 굳건히 다져 한 단계 더 성숙한 의정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한 해 보내주신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남구의회 14명 의원 모두는 구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구민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주민감동, 열린의정' 실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정훈 국회의원(남구갑)

존경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기해년(己亥年) 새해 인사드립니다.  
급년 한 해에도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고용은 둔화되고 청년실업률은 증가하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그 어느 때보다 컸

습니다.  
우리 남구 주민들께서도 많은 걱정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새해에는 황금돼지 해의 기운으로 서민경제가 회복되어 남구주민들께서 편안한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의 활동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우리 남구 경제의 핵심 축인 문현금융단지에 2단계 부지 내에 뮤지컬 전용극장, 증권박물관, 쇼핑몰, 비즈니스 호텔 등이 개관될 예정이며 향후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덕 내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상생과 협력 위해 달리겠습니다



박재호 국회의원(남구을)

사랑하는 남구 시민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화목만 가득하고, 목표한 일들이 술술 풀리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여러분의 선택으로 우리 남구와 부산이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선택에 감사드리며, 시민의 삶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올해부

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남구와 부산의 변화에 더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민생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합심하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자리도 늘리고, 사회 안전망도 촘촘하게 대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일하겠습니다.

상생과 협력은 올해 우리 남구와 부산이 가야 할 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거대한 변화의 한 복판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낙오되거나, 소외되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서로 삶과 고통을 나누어 가야 합니다. 민생정치하라는 제게 맡겨진 역할을 한시도 잊지 않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고충해결이 저를 비롯한 남구 일꾼들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남구의 일꾼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여러분의 단연한 권리입니다.

##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받아

## 남구의회 제268회 임시회

2019년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제268회 남구의회 임시회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열렸다. 회기 첫날인 8일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함께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날 이강영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이익을 위해 여·아가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주민의 참된 뜻을 받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는 의지를 밝히며, 또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여 '활력이 넘치고 경제가 살아 숨쉬는 희망의 남구'를 만들자"는

당부로 개회사를 마무리했다.  
이어, 박구슬 의원은 '남구 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조례 제정 촉구'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한편 남구의회는 9일 상임위원회 활동을 펼쳐, 상임위원회 별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소관업무의 부서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등 내일 있는 상임위 활동을 하였으며, 이 날 주민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허미향)는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을 심사하여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날 박미순 의원은 '구민 위에 있는 남구청'이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지난 제268회 임시회 안건은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시 주관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조정 등 경영합리화 방안 연구용역」결과를 근거로 우리 구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자체 진단,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분뇨수거 처리안정을 기하고자 함.



남구의회 신년회 남구의회는 지난 8일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2019년도 기해년 신년회를 가졌다. 참석의원들은 28만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다짐했다.



트램 유지 결의대회 남구의회는 지난 18일 본회의장에서 '오륙도선 트램 유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강영 의장은 "주민들의 삶의 개선을 위해 트램은 반드시 남구에 유지되어야 한다"며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실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남구의회 의원들은 2019년도 설을 앞둔 지난 15일 대연동 구세군부산요양원, 용호동 해피실버타운을 찾아 입소자와 시설 종사자를 위로하고 관심을 기울였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협의회 정기총회 남구의회 이강영 의장(아랫줄 오른쪽 첫번째)은 지난 21일 2019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 의장은 또 지난 24일 부산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에도 참석했다.

## 남구 복합청사 건립안 등 부결

## 남구의회 제269회 임시회

남구의회(의장 이강영)는 1월 14일 1일간 일정으로 제269회 임시회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 날 본회의에서 「2017년도 부산

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구복합청사(주민대피시설 및 보건소) 건립]», 「201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구 보건소 보강·수령 증축)」, 「2019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안(남구청 별관 건립)」, 안건에 대해 무기명투표를 실시하였으며, 투표결과는 안건별 찬성 7표, 반대 1표, 기권 6표로 부결되었다.

## 5분 자유발언

## 주민 일자리 창출위한 조례 제정을

박 구 슬 의원  
(대연1.4-6)

저는 오늘 우리 남구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조례 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의 일자리 문제는 청년취업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방화시대, 지방경쟁시대에 지역의 생산성을 높이고 인구증가를 유도하는 등 도시 성장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은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라는 장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기업 경쟁력의 강화는 세입증대로 이어지고 세입증대는 또 다른 고용을 창출하고 세수로 확장되어 긍정적인 선순환 효과를 가져옵니다.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남구는 보다 적극적인 의지로 남구만의 차별화 된 조례와 일자리 창출 추진위원회 구성 등 정책을 입안,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남구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구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직자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먼저 구청 내 부서에서 채용하는 공무

직,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 프로그램 강사 등의 채용에 남구 주민에게 거주민 채용가점제 등을 규정화하여 채용기회를 늘리자는 것입니다. 이는 남구에서 창출된 일자리에 남구주민만을 채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면접결과 등에서 동일한 배정을 받는 경우라면 우리 남구 주민에게 최소한의 주민배려차원의 가점제를 제도화하자는 것입니다. 그 한 예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직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입니다. 연제구는 채용서류심사 배정기준에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연제구에 거주한 전체기간을 채용규정항목으로 조제상에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문현금융단지는 부지부터 타지 근무자들의 아파트 부지까지 배려한 남구가 직원 채용에서 남구민 배려가 전혀 없었다는 점은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례로 못 바야 기업을 선의로 설득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남구 일자리 창출위원회 구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만의 차별화된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에 관한 방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학,관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처리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셋째, 남구 종합일자리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합니다.

향후 발전된 형태의 사업을 연계해 내기 위해서 취업·창업·교육을 포괄하는 종합적 개념의 시스템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기관들의 특성을 감안하고 그에 맞는 유기적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종합 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직업알선이나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고 구직자들의 경력관리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우리 남구 주민과 구청 간 갈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8여 년 간 메트로시티 단지 내 도로가 공용도로로 사용되면서 도로파손이 가속화되어 메트로 입대위에서 분포초교

박 미 순 의원  
(용호1)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로운 구청장님과 의원님들로 구성된 남구청과 남구의회는 소통하는 남구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재범 구청장님은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들여 구청장실도 2층 민원실로 옮겼습니다. 단순히 구청장실을 이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민들과 소통하고 함께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었기에 의회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집행부의 모습을 보면 구민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려는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는 용호동 메트로시티 차단기 문제, 대연동 남구 보건소 이전문제, 감만동 한동대 주민과 구청 간 갈등으로 주민들과 구청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갈등 해결을 위해 집행부가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되돌아 볼 때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여러 집단민원 중 「용호동 메트로시티 도로 차단기 설치로 주민과 구청 간 갈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8여 년 간 메트로시티 단지 내 도로가 공용도로로 사용되면서 도로파손이 가속화되어 메트로 입대위에서 분포초교

## 구민과 소통하는 남구청을 바라며

주변 불법주차 단속과 공용도로 도로포장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남구청에서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도로포장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보냈으며 입대위측에서 단지 내에 도로차단기 설치에 대한 입장을 듣고자 2018년 7월 19일 남구청에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행정과에서는 2018년 10월 26일에야 차단이 설치시 문제점을 담은 공문을 전달하였었습니다.

구청의 회신지연으로 차단이 설치시 발생할 문제점을 몰랐던 입대위 측에서는 주민동의절차를 진행해 도로 차단이 설치사업을 진행하자 남구청에는 주민설명회등 한차례의 소통 노력도 하지 않고 부산시에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검토, 마일버스 노선변경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었습니다

현재, 메트로시티 단지 내에는 차단이 설치되어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각자의 주장을 담은 현수막을 거리 곳곳에 설치해 주민 간 반목과 불신의 소모적 논쟁을 계속하고 있고 메트로시티내 공용도로를 이용하는 수많은 남구민들이 불편과 피해를 보는 것은 자명함에도 구민 불편과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여야 하는 남구청에서는 갈등해소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본 의원은 깊은 유감을 밝히는 바입니다.

메트로시티 문제에 대한 남구청의 조치과정을 보면서 남구보건소 이전등 남구의 여러 문제에 대해 주민들과의 소통작업을 해 나갈 의지가 있는지 심히 우려됩니다

불통은 불신을, 소통은 신뢰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불편과 요구를 전부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남구청이 되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구정질문

## 복합청사 이전 재검토와 관련해

조 상 진 의원  
(대연3-5)

## 의원 질문

남구 복합청사 보건소 전면 재검토 관련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선6기 사업인 남구 복합청사 보건소 건립은 지난 3년 간 많은 주민토론이 있었고 결국 의회 승인을 거쳐 결정된 사업입니다. 당시 구의원으로서 활동했던 현 구청장께서도 대연5동 민방위교육장에 복합청사를 건립하는 것에 찬성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집행하기로 했던 이 안건을 이제와 재검토하겠다고 하니 5동 주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계산 것 같습니다. 대연5동 SK뷰힐스 아파트 측에서는 반론에 대한 행정위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면 재검토 결정은 주민 의견 수렴과정 등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었습니까?

대의정치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과정의 공정성입니다. 토론과 반론 과정에서 최종결정은 의회 결정사항입니다. 본의원에서 지난 7대 의회 때 보건소를 지금 자리에 민방위교육장으로 옮기는 것이 주민 편의성과 접근 차원에서 문제가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선출직에게는 승복이라는 문화가 중요합니다. 의회의 결정과 또 집행부의 결정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불복하시겠다는 뜻으로 비칩니다.

게다가 의회에 충분히 묻고 질의하고 의견을 구해야 하는 게 마땅한데 의회에 공식적인 상의도 없이 의회를 패싱(passing)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집행부 답변

지난 의회 때 복합청사 건립안이 가결되었다고 해서 모

든 의원들이 그 안에 찬성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재검토안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 여론조사나 의견 수렴을 하는 것은 오히려 주민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에 대한 최종안이 나오면 주민들에게 결과 보고를 겸해 진행사항을 사후 보고하고 토론할 생각입니다.

민선7기 단체장으로 취임한 후에 우리 남구에 복합청사가 꼭 필요한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복합청사 건립은 남구청 개정 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임에도 국·시비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고교급식 무상급식에 있어 부산시가 우리 구에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어 긴축재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고 또 추가 건설비가 많이 든다고도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물론 복합센터 건립에 매몰비용에 대한 불편함이 있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근본적인 고민 끝에 긴급구호비를 얻었고 그 과정에서 보건소를 옮기기 보다는 증축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의회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부에서 확정안이 나오지 않았고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입니다. 그런 절차를 거친 뒤 의회에 보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 중에도 보건소를 지금 자리에 놔두자고 하는 의견과 복합청사를 지어 옮기자고 하는 의견이 양분되어 있습니다.